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의
관련성에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김 성 루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의
관련성에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김 성 루

인 준 서

김성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의 관련성에서 방어유형의 매개 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남녀 429명이었으며, 한국판 도식질문지 (Young Schema Questionnaire),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 (Korea-Defense Style Questionnaire),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도식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경계선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적응적인 방어유형(미성숙, 자기억제, 갈등회피)을 많이 사용할수록 경계선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계선 성향과 적응적인 방어유형은 유의미한 상관 없이 나타났고. 둘째,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의 관련성에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방어유형은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적응도식은 경계선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방어유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의 모형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적응도식, 경계선성격, 방어유형, 매개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가설5

II. 이론적 배경

- 1. 경계선성향 6
- 2. 부적응도식 8
 - 2.1 도식8
 - 2.2 부적응도식10
 - 2.3 경계선 성격장애와 부적응 도식13
- 3. 방어유형 17
 - 3.1 자아방어기제17
 - 3.2 경계선 성격장애와 방어유형21
 - 3.3 심리도식과 대처방식 및 방어유형23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25
- 2. 측정도구 25
 - 2.1 한국판 도식질문지25
 - 2.2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27

2.3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30
3. 연구모형	32
4. 자료의 분석	33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34
2.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36
3. 경계선 성향에 대한 각 변수의 중다회귀분석	38
4. 구조 방정식 모형의 검증	39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논의	43
2. 제한점 및 제언	4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하위요인	26
표 2.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의 하위요인	28
표 3.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하위요인	31
표 4. 각 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평균차이	35
표 5. 각 변수들에 대한 상관	37
표 6. 경계선 성향에 대한 각 변수의 중다회귀분석	38
표 7. 연구모형의 적합도	39
표 8. 연구 모형의 경로검증결과	40
표 9.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전체효과	42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32
그림 2. 부적응도식, 방어유형, 경계선성향의 관계 모형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격특성이란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개인의 지각, 행동 및 사고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성격특성이 융통성이 없고 부적응적이어서 기능적 손상이나 주관적 고통을 유발시킬 때 성격장애라고 한다(DSM-IV, APA, 1994). 성격장애의 한 유형인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자기상, 전반적인 정서적 불안정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핵심특성에서 비롯된 다양한 증상들이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충동성을 가지고 있다(DSM-IV-TR, APA, 2000).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경계선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영화나 드라마, 소설과 같은 대중매체 속에서 경계선 성향이 높은 인물들이 자주 등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이 이슈화 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임상 장면에서 10~15%(DSM-IV, APA, 1994), 비임상 장면에서 1~2%(Torgersen, Kringlen, Cramer, 2001)로 진단될 정도로 유병률이 높은 편이고 자해를 비롯한 높은 자살 시도(Stone 1989; Paris, Brown, & Nowlis, 1987; Kroll, Carey, & Sines, 1985; Linehan, 1983, 재인용), 알코올 남용과 같이 주목받기 쉬운 외현화 행동들 때문일 것이다.

경계선 성격은 상황에 따라 매우 낮은 기능 수준에서부터 신경증적인 성향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있으며 매우 불안정한 자기 경험을 드러낸다

(Grilo, 2004; Clarkin, 2006; Clarkin & Levy, 2006). 10년 내외 동안 추적해 본 연구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관계, 빈곤한 직업수행, 증상 수준 등이 대체로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또한 젊은 성인기 동안에 오랫동안 불안정한 시기를 거친 후에 개선된다(Stone, M. H., Stone D.K., & Hurt, S.W, 1987). 이처럼 경계선 성격장애는 초기 성인기에 발생되어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방해한다. 따라서 증상의 완화와 치료적인 개입을 위해 임상환자군 뿐 아니라 초기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지적인 관점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는 역기능적인 도식과 대처 기술이 조합된 결과이다(Arntz,2004; Arntz & Genderen, 2008). Young은 유기/상실(abandonment/loss), 의존(dependent), 결합(unlovability), 불신(mistrust), 예속/굴종(subjugation/lack of individuation), 부적절한 자기-처벌(inadequate self-discipline), 정서 통제 상실의 두려움(fear of losing emotional controle), 죄책감(guilt/punishment), 정서적 박탈(emotional deprivation)과 같은 부적응적 도식이 경계선 성격 장애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였다(Back,1990;Andrew, Brown, Beck, &Grisham, 2002).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및 파국의 도식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반면에 예속/굴종의 도식 특성은 더 적어질수록 경계선적 성향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호,2002). 또 다른 국내연구에서는 정서지지 결여, 불신, 고립/단절, 상실우려, 충동분노가 경계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적인 도식으로 나타났다(김윤숙,2005). Anderson 등(2002)은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들이 다른 성격장애 환자들보다 의존, 무력감, 불신, 거절/유기 공포, 정서적 통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연극성 행동의 부적응적

도식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와 강박 성격장애, 회피성격장애를 비교했을 때, 경계선 성격 장애 그룹은 의존/무력함(dependent/Incompetence), 결함/수치심(defectiveness/shame), 유기(abandonment) 도식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Jove, & Jackson, 2004).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부적응 도식이 경계선 성향을 잘 설명 해주며, 다른 성격장애와 구별되는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양상인 빠른 기분 변화는 단일 도식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웠다. 따라서 정서적 특징인 불안정성과 대인관계의 유동성으로 인한 극단적인 감정변화를 적절히 포착하면서 많은 초기 부적응 도식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분석단위가 필요하였다(유성진, 권석만, 2008). 이에 따라 Young은 여러 심리도식을 한데 묶어 더 다루기 쉽게 만든 새로운 분석 단위로서 도식양식(mode)의 개념을 탄생시켰으며, 도식양식은 도식들 혹은 대처반응들의 조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김영혜, 2005).

한편, 방어는 대처에 대한 전통적 개념 중 하나이다(Forkman & Lazarus, 1980). 개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축적해 놓은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생한 체험들이 응축되고 체계화되어 형성된 바탕으로부터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즉, 방어)이 유래된다. 이렇게 볼 때 개인들이 사용하는 방어 방식의 성숙성 또는 병리는 그 개인의 마음 바탕의 성숙성 또는 병리를 반영할 것이다. 인지치료 이론에서 마음 또는 성격의 기본 구성단위는 도식이므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 도식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방어의 유형 또한 달라진다. 부적응 도식 중에서 특히 고립/단절, 내성취약, 충동/분노, 예속 굴종 등의 4개의 도식들의 특성이 더 많아 질수록 부적응적 방어유형의 경향성

은 더 강해진다(조성호, 2001). 경계선 성향을 가진 개인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중심적이고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적인 방식의 방어를 한다. 대인관계에서 경험되는 갈등과 불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하며 이러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자해나 자살 시도 등의 극단적인 해결책을 보이게 된다(Zanarini, 1990).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미성숙한 방어를 보이며(Kernberg,1975; Zanarini, 2009; 이상우, 장문선, 2010), 투사와 행동화 방어기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정해, 2009).

이제까지 경계선 성격장애의 병인론에 대한 연구(예; Trull, 2001; Helgland, Torgersen, 2004; Bradley, Jenei, EdM, Western, 2005)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변인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거나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달 과정을 밝힌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김윤숙, 2005).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심리도식과 방어기제 각각이 경계선 성향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심리도식과 방어기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예; 조성호, 2001)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oung의 부적응도식이 방어유형을 매개로하여 경계선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명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적응 도식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경계선 성향이 강할 것이다.

가설 2. 부적응적인 방어유형(미성숙/자기억제/갈등회피)를 많이 사용할 수록 경계선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부적응 도식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부적응적인 방어유형을 (미성숙/자기억제/갈등회피)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4. 방어유형은 부적응 도식이 경계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경계선성향

‘경계선(borderli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명확히 범주화 되지 않는 한계 수준의 기능 또는 가벼운 형태의 정신분열증을 기술하는데 사용되어왔다. Stern(1938)은 신경증과 정신병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고전적인 정신분석 치료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외래환자들을 기술하기 위해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다른 이론가들은 경계선 환자를 신경증과 정신증 사이(Stern, 1938; Schmeideberg, 1947; Knight, 1954; Kernberg, 1975), 정신분열증과 비정신분열증 사이(Noble, 1951; Ekstein, 1955),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사이(Rado, 1956)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후 “경계선”이라는 용어는 성격의 특정 구조와 중간 정도로 심각한 성격기능을 의미하는 말로 진화되었다(Linehan, 1993; 김윤숙, 2005 재인용).

현재 DSM-IV-TR에서는 성격장애를 청소년기나 초기성인기에 발현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서도 안정적이며 경직된 주관적 경험과 행동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양상은 인지, 정동, 대인관계 기능, 충동조절에 있어서 개인이 속한 문화의 기대에서 현저히 벗어난 방향으로 나타난다. 한편 성격특성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맥락 및 환경의 폭넓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사고, 환경과 관계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와 환경을

수용하는 지속된 양상으로 정의하고 있다(APA, 2000). 이처럼 성격특성이라는 것은 성격장애처럼 극적으로 두드러진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일관되게 자신의 행동과 주위환경에 영향을 준다. 특정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적응 방식과 환경의 압력에서 취약한 상황에 직면할 시 자신의 성격특성에 해당하는 성격장애의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Boschen & Warner, 2009).

특히, DSM-IV-TR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대인관계, 자기상, 전반적인 정서적 불안정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핵심특성에서 비롯된 다양한 증상들이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APA, 2000). 경계선 성격장애는 입원과 외래 장면에서 가장 흔히 진단되는 성격장애이며 그 유병률이 일반인구의 2%, 정신과 외래환자의 10%, 정신과 입원환자의 20% 정도로 추정된다(권석만, 2003). 이러한 경계선 성격장애는 (1)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유기를 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2) 극단적 이상화와 평가 절하 사이를 오가는 특징으로 드러나는 불안정하고 강한 대인관계 패턴, (3) 정체감 장애: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불안정한 자기상 또는 자기 지각, (4) 잠재적인 자해 충동성, (5) 반복적 자살행동, 자살 시늉, 자살 위협, 자해행위 (6) 현저한 기분의 변화에 따른 정동의 불안정성, (7) 만성적인 공허감, (8)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 또는 분노조절 곤란 (9) 일과성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망상적 사고 또는 해리 증상 중 5가지 이상 항목을 충족시킬 때 진단 내려진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은 개인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우울, 불안, 분노, 공포, 의심 등 웬만한 심리적 장애에서 발견되는 주요 증상들을 거의 다 포괄할 만큼 다양

하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우울증 및 기타 정서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불안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등과 높은 공병현상을 보이며, 일생 동안 자살에 이르는 비율이 10%에 해당할 정도로 환자 개인에게 매우 심각하며 깊은 영향을 미친다(Fruzzetti, 2002; 양윤주, 류인균, 2000; 김지선 2008, 재인용).

2. 부적응 도식

1) 도식

도식이란 용어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구조, 뼈대, 윤곽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도식이라는 용어는 주로 인지 발달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도식의 개념은 Piaget의 설명에 기초하는데 그는 지식의 기본단위로서 유기체가 외계의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해의 틀을 도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인지발달에서 말하는 도식이란 현실이나 경험에 부여된 어떤 패턴으로서, 개인이 현실과 경험을 설명하는 것을 돕고, 지각을 매개하여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도식은 어떤 사건의 독특한 측면을 추상적으로 표상한 것이며, 가장 뚜렷해 보이는 요소들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 이다.

문장을 이해하는 언어적 도식이나 신화를 해석하는 문화적 도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인지심리학에서 도식은 정보를 해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추상적인 인지적 계획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Young et al., 2005) Beck은 인지도식은 개인이 자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미를 해석하며 주관적인 경험을 나름대로 조직화

하는 인지적 틀이라고 정의하였다. 인지도식은 자신과 세상,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들의 경향이며 중요한 순서에 따라 나열될 수 있다. 또한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지각하고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도식은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활성화된 인지 도식은 일상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나타난다. 잠재되어 있는 인지 도식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하에서 활성화된다(Gilson, 2006). 인지이론에서는 인지도식을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취약성 요인으로 본다(A.T. Beck et al.,1979; Young, 1990; Friedberg., et al., 2007).

인지 도식은 인생 초기에 형성되어 자라면서 강화를 받게 된다. 인생 초기의 인지도식 자료는 전 언어 수준에서 부호화되기 때문에 언어적 자료 뿐 아니라 비언어적 심상도 포함하고 있으며(Hammen & Zupan, 1984; Young, 1990;Friedberg et al.,2007),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가 되면 반복 학습과 경험의 결과로 더욱 공고해진다(Hammen & Zupan, 1984; Young, 1990; Friedberg et al.,2007). 도식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교해지면서 생애 후기 경험들에 중첩되며, 심지어 더 이상 도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때로 이것은 ‘인지적 일관성’에 대한 욕구라고 일컬어지는데,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정된 시각이 실제로는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넓은 의미의 정의로 보면, 심리도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적응적일 수도 혹은 부적응적일수도 있고, 아동기에 형성될 수도 있고 생애 후반에 형성될 수도 있다(Young et al., 2005)

2) 부적응 도식

인지이론가들은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도식이며, 도식과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 성격장애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Beck & Freeman, 1990; Pretzer & Beck, 1996). 인지치료 이론의 틀 내에서 부적응 도식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다. 예를 들어, Beck(1967), Segal(1988) 등과 같은 인지치료 이론가들은 개인의 자기-개념의 중추를 구성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신 구조로서 도식을 상정하면서, 이러한 도식으로 인해 자기와 타인 및 외적 현실에 단 정보처리 과정이 어떻게 왜곡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왜곡이 어떻게 심리적 부적응으로 귀결되는지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Young(1990)이 제안한 ‘도식-중심 치료(Schema-focused therapy)’이론이다(조성호, 2002). Young의 ‘도식-중심 치료는 인지치료가 가진 장점(인지적 기법과 행동적 기법의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절차와 적용)과 더불어 내담자의 정서와 현재 문제에 영향을 주는 과거 경험을 탐색하여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패턴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김영혜, 2005).

Young(1990; 1999)은 몇몇 부적응적인 심리도식들은 성격장애, 가벼운 성격문제, 만성적인 축 I 장애의 핵심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부적응 도식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발달하여 전 생애에 걸쳐 정교화 되는 광범위하고 만연된 주제 또는 패턴으로써, 기억·감정·인지·신체감각으로 구성되며 자기 자신 및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데 개인의 삶에 심한 부적응을 초래할 정도로 역기능적이다. 간단히 말하면, 부적응 도식은 자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이며 생애 초기에 시작되어 일생동안 반복된다(Young et al., 2005).

Young은 부적응 도식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부적응 도식은 대체로 아동기의 외상적인 경험과 비슷한 생활 사건들에 의해 촉발된다. 이러한 생활 사건들은 아동기나 청소년기 동안 규칙적으로 반복된 유해한 경험이며, 유해한 경험이 축적되어 여러 문제를 지닌 심리도식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모든 심리도식이 아동기 외상이나 학대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의존/무능감 도식은 아무런 아동기 외상 경험이 없어도 발달될 수 있다. 오히려 그는 어린 시절 동안 완전하게 돌봄을 받았거나 과잉보호를 받았을 수도 있다. 부적응 심리도식들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이 촉발되면 비통감, 수치심, 공포감, 분노감과 같은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부적응 도식은 자기 영속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저항적이다. 도식은 생애초기에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삶의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정교화 되고 공고화된 것으로, 핵심적인 자기 개념과 환경 개념을 형성한다. 이처럼 도식은 한 개인이 알고 있는 것 자체이며,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이 고통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에게 매우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다. 개인은 심리도식을 우선적인 진실로 간주하며, ‘당연한’ 것으로 느낀다.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도식을 자극하는 사건에 쉽게 이끌리는데,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추동 때문에 도식과 반대되는 정보가 나타나더라도 도식을 수정하기 보다는 그 도식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왜곡한다. 도식의 변화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 도식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지적 책략들을 사용하게 된다.

셋째, 부적응 도식은 이후의 경험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도식은 자기와 환경을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기 위한 참조 틀로서 기능하게

된다. 초기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식은 아동이 처한 환경을 현실에 기초하여 표상한 것으로 한 사람이 겪은 초기 환경의 분위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개인의 생각, 느낌, 행동 및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적응적인 도식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에게 상당히 해로웠던 아동기의 상황들을 다시 반복하도록 이끄는 역설적인 역할을 한다.

넷째, 부적응 도식은 반복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낸다.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의 심리적인 고통, 부적절한 대인관계 및 업무 수행, 약물 중독, 폭식증, 신체형 장애 등의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 때로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치료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가 계속 재발하게 된다.(김윤숙, 2005) 더 이상 자신의 지각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심리도식을 지속시키는 생애 후반부로 가면, 심리도식의 역기능적인 특징은 더 뚜렷해진다. 불안, 우울, 물질남용, 정인지체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축 I 장애의 기저에는 종종 부적응 도식 및 심리도식에 대한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다섯째, 부적응 도식의 심각성과 만연된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의미에서, 심리도식에도 차원이 있다. 심리도식이 더 심각할수록 더 많은 상황에서 도식이 활성화 된다. 일반적으로, 심리도식이 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도식이 촉발될 때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더 강렬하며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Young은 부적응 도식이 정상 집단에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임상 집단에서는 더 과장되고 극단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제안하였고,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Freeman은 부적응 도식이 약하게 드러날수록 개인의 대인관계 적응이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Young et al., 2005).

3) 경계선 성격장애와 부적응 도식

‘부적응 도식’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Young은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들이 많이 나타내는 부적응 도식들을 기술하였다(Young, Klosko, and Weshaar, 2003). 그러나 경계선 성격장애는 Young이 만든 18개의 부적응 도식을 모두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역기능적 대처 반응 수가 너무 많아서 감정 상태를 포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양상인 빠른 기분 변화는 단일 도식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웠다. 따라서 정서적 특징인 불안정성과 대인관계의 유동성으로 인한 극단적인 감정변화를 적절히 포착하면서 많은 부적응 도식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분석단위가 필요하였다(유성진, 권석만, 2008).

이에 따라 Young은 여러 심리도식을 한데 묶어서 더 다루기 쉽게 만든 새로운 분석 단위로서 양식(mode)의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매 순간 경험하는 정서 상태 및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시점에서 우세한 상태를 나타낸다. Young(2003)은 양식(mode)을 “현재 개인에게 활성화된 도식 혹은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도식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정한 부적응도식이나 대처반응이 불쾌한 정서, 회피반응, 자기패배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개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려고 할 때 역기능적인 양식이 활성화되었다고 본다. 매 순간 보이는 정서 상태에 대해 경계선적 성격장애 환자들은 극단적인 정서 혹은 대처 반응에서, 다른 상태 혹은 대처반응으로의 이동이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들이 보이는 도식 양식은 몇몇 도식들로 구성되기도 하고, 대처반응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즉 도식들 혹은 대처반응들의 조합을 통해 개인에게 독특한 도식양식이

나타날 수 있다(김영혜, 2005).

Young은 전형적인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축Ⅱ의 진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경계선 성격장애환자는 대개 네 가지의 심리도식양식을 나타내는데 양식들이 매우 빠르게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Young, 2005). 그 중 첫 번째는 유기된 아이 양식이다. 이 양식은 아동 내부의 고통을 의미한다. 유기, 학대, 박탈, 결합, 예속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식과 관련한 고통과 두려움을 경계선 성격장애환자들은 경험한다. 두 번째 양식인 성난 아이 모드는 경계선 성격장애환자의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격해질 때 활성화되며, 충족되지 않는 정서적 욕구로 인해 분노하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세 번째인 처벌적인 부모 모드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처벌하고, 비판하는 부모의 내재화된 목소리이다. 이 모드가 활성화 될 때 환자는 스스로 잔혹한 처벌자가 된다. 네 번째로 분리된 보호자 양식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모든 정서를 차단하고, 물질을 남용하며, 자기를 자극하고, 타인과 단절하며 거의 자동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 모드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도피를 통해 심리도식이 유발하는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어떤 순간에는 유기된 아동 양식에서 고통을 느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성난 아동 양식으로 변화되어 심한 분노를 표출하며, 다시 처벌적인 부모 양식으로 변화되어 유기된 아동을 처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분리된 보호자 모드로 물러나서 모든 감정을 차단하고 사람들로 부터 거리를 둔 채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다양한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통합된 정체감은 적절히 유지된다. 건강한 사람들과 경계선 성격장애환자의 양식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정상적인 양식은

경계선 양식보다 덜 해리되어 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양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지만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양식은 자기의 일부가 다른 부분으로부터 순진하고 강렬한 형태로 분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행복해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달콤씹쓸함(bittersweet)’ 기분을 느낄 수 있지만,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완전히 격노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둘째, 정상적인 양식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양식에 비해 덜 경직되어 있고 융통성이 있으며 변화의 가능성도 크다. Piaget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정상적인 양식은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과 손상된 사람은 그들이 지닌 건강한 성인 양식의 강도 및 효율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화가 나더라도 분노감이나 행동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건강한 성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건강한 성인 양식이 매우 약해서 일단 성난 아동 양식이 촉발되면 이를 상쇄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Young et al., 2005)

Young은 경계선 성격 장애와 관련된 부적응 도식을 유기/상실, 결함, 의존, 예속/굴종, 불신, 부적절한 자기-처벌, 통제 상실의 두려움, 죄책감/처벌, 정서적 박탈로 들었다(Beck,1990; Andrew ,Brown, Beck, & Grisham, 2002, 재인용). 주요 경계선 성격특질로서 유기에 대한 만성적인 공포, 충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한 내성, 잦은 분노 폭발, 의존과 독립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불안정한 대인관계 패턴, 미약한 자기-가치감, 만성적 공허감이 언급되어 왔는데(Gunderson, Mary, & Zanarini, 1987; Millon & Davis, 1996; 조성호, 2000, 재인용), 경계선 성격 특질의 전체 변량의 절반 이상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 다섯 가지 부적응

도식(충동/분노, 상실 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한 기존의 이론적 및 임상적 관찰과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성호, 2002). 이에 더하여 고립/단절 도식은 다양한 자기 지각적 정서와 상관이 있고, 불안, 우울, 긴장, 예민성 및 적대감과 높은 상관이 있어(이지영, 손정락, 2007) 경계선 성격장애의 불안정한 정서를 잘 설명해줄 것으로 판단되며, 조성호(2001)의 연구에서 예속/굴종, 충동/분노, 내성취약과 더불어 부적응적 유형의 방어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 고립/단절의 6개의 도식을 채택하여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격의 관련성에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볼 것이다.

3. 방어유형

1) 자아방어기제

자아방어기제(ego defense mechanism)는 신경증적 증상형성의 결정적 요인으로 정신역동적 입장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성격 및 인격형성, 적응 및 대처방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Brenner, 1976).

정신분석에서는 자아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을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Freud는 방어를 ‘정신내적 갈등이나 외적인 환경적 요구와의 갈등에 직면하여 불안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불안을 다루기 위해 자아가 동원하는 갖가지 정신적 대처’라고 정의하였다(Freud, 1926).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자아 방어기제를 해결되지 않는 원본능의 충동들로 인한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무의식적이고 내재적인 과정(intrapsychic processes)라고 생각해 왔다(유영수, 1995). 초기의 이론들이 방어의 심리내적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기 방어 이론에서는 방어를 중요한 타자와의 친밀한 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관계 및 인지적 패턴으로 보았다. 자아방어기제는 불안방어라는 적응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원본능에 대한 왜곡된 지각이나 증상형성(Freud, 1936; Schafer, 1968), 개인의 능력과 환경의 요구에 대한 인지적 왜곡(Caplan, Caplan, R. D., Naidu, R. K. & Tripathi, R.C., 1984)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자아심리학(ego psychology)가 발달하면서, 자아의 방어기제

를 자아의 적응적 기능 중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적응양식으로서 방어기제의 긍정적 개념이 강조되었다(유영수, 1995). 불안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목적으로 작동되는 적응기제로서의 방어기제는 인간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적응 문제와도 관련되면서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생활방법의 한 방편으로도 기능한다(Inlievich & Gleser, 1986). Willick(1995)은 방어란 불안을 유발하는 추동이나 불쾌한 정동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상적인 조작으로서 주로 심리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며, 정상적인 적응 및 병리적인 증상이나 성격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방어는 성격발달, 증상형성, 심리적 생활의 모든 측면들에서 경직되고 지속적으로 이용될 때 병리적이다. Mentzos(1982)는 자아기능이 현저하게 제한되고, 자유로운 자아 발전과 실현이 감소될 때 방어기제가 병리적이라고 보았다.

자아방어기제는 정신 병리적 기능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되면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현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써 갈등을 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 외부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정규, 1991). 따라서 방어 반응이 지나쳐 습관화 되면 욕구 좌절의 요소가 그대로 잠재하여서 다시 새로운 욕구 좌절이 파생되고 누적되어서 마침내 심각한 부적응을 일으켜 이상행동을 하게 된다(최정운 외, 2002). 자아 방어기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자아를 보호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적응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의 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회피하기 때문에 사회적이거나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유영수, 1995). 이러한 자아방어기제의 포괄적인 개념을 고려해 볼 때, 자아방어기제의 적응적

측면은 정신건강의 심리적 건강 및 적응의 측면과 관련을 가지며, 부적응적 측면은 정신건강의 정신 병리의 유무 차원과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자아방어기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Anna Freud(1936)는 개인의 자아가 성숙함에 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방어기제 또한 발달한다고 하였으며, 자아의 발달에 따라 방어기제를 분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Miller와 Swanson(1966)은 현실왜곡 정도, 기제의 복잡성과 단순성, 적용범위, 기제의 사회적 적응 가능성이라고 하는 네 개의 범주로 방어기제를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정신장애와 관련시켜 범주화(Byrne, D., Barry, J., & Nelson., D., 1963)하거나 적응수준(Vailiant,1971)에 따라 방어기제를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Vailiant(1986)는 방어기제는 성숙한 기제에서 미성숙한 기제로까지 일정한 위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자아방어기제 사용이 일부에서는 그대로 지속이 되며, 일부에서는 인격이 성숙됨에 따라서 자아방어기제가 성숙 단계로 이동 되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자아방어기제를 성숙도에 따라 성숙한 방어기제(이타주의, 유머, 억제, 예기, 승화), 신경증적 방어기제(주지화, 억압, 전치, 반동형성, 해리), 미성숙한 방어기제(투사, 분열성 공상, 건강염려, 수동-공격적 행동, 행동화), 자아도취적 방어기제(망상적 투사, 부정, 왜곡)의 4단계로 분류하였다(Vailiant, 1971; Vailiant, G. E., Bond, M. & Vaillant C .O., 1986). 또한 Bond, Gardner, Chistian과 Sigal(1983)이 개발한 DSQ(Defednse Style Questionnaire)를 조성호(1999)가 타당화시킨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K-DSQ)에서는 방어유형을 미성숙한 방어유형(행동화, 투사, 분리, 공상, 수동 공격, 소비), 적응

적 방어유형(유머, 전능, 승화, 부정), 자기억제적 방어유형(억제, 반동형성, 철수, 취소), 갈등 회피적 방어유형(체념, 격리)로 분류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방어기제의 위계는 공통적으로 성숙한 단계와 미성숙한 단계를 함께 제시하고 이를 자아의 성숙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성숙한 단계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아존중감 수준(Plutchik & Conte, 1989)과 자아발달 수준이 높았으며(Bond, 1983), 아동기에 정서적 문제를 적게 경험하였다. 또한 정신과 환자는 정상인보다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정상인 중에서도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낮다고 보고되었으며(김은경, 1992), 불안과 방어기제와의 관계에서는 불안이 높은 집단이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구본권, 1979). 그 밖에도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정상인보다 자아방어기제 중 자기애적이거나 미성숙한 소수의 자아방어기제, 이를테면 투사, 부정, 수동-공격행동, 신체화, 행동화, 퇴행 등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이인길, 이근후, 1991). 우리나라의 경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환병의 경우, 환병 환자들이 정상인보다 고립, 참기(inhibition), 유머, 퇴행, 불완전한 억제, 신체화, 먹기(comsumption)등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민성길 외, 1993; 유영수, 1995 재인용).

이와 같이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방어기제는 신경증적 질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적응방식, 생활양식 등에 영향을 주고 있어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는 물론 일반인의 성격, 행동 등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경계선 성격장애와 방어유형

자아방어기제는 성격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격형성의 기초로서 작용한다(조두영, 홍택유, 백기칭, 1988; 정한용, 한선호, 최의정, 김동욱, 1999; Crowder, Hollender, 1980).

자아방어기제가 성숙단계에 따라 변화되더라도 유사한 성질을 지닌 자아방어기제의 범주 내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되어가는 자아방어기제의 종류는 성격유형에 따라 결정된다(Vaillant, 1976). Freud는 개인의 인격이란 기본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자아의 여러 방어 반응이 다양하게 조합을 이룬 결과라고 하였으며, 신경증은 과장된 방어반응을 사용하는 자아장애라고 하였다(Haan, 1963). 또한 Millon(1985, 1986a, 1986b)은 병리적인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한 가지의 주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으며 성격장애 각 유형에서의 주요 방어기제 유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자아방어기제 양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개인의 적응양식이나 성격유형의 규명과 함께, 집단 내 구성원의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집단공유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집단내의 특유한 행동양식, 적응 방식 등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정한용, 홍혜경, 김양래, 이소영, 정희연, 한선호, 2002).

DSM에서 경계선 성격의 양상들은 Kernberg(1967)의 관점을 근간으로 정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Kernberg는 경계선 성격조직이라는 개념으로 경계선 성격을 설명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자아 약화, 원시적 방어사용, 대상관계의 곤란 등의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렇듯 경계선 성격조직의 개념은 DSM에서 언급된 불안정한 정서성과, 극단적 감정경험, 자아기능의 약화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내재화 된 대상관계와 특이한 방어기제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Kernberg, 1975; 이상우, 2010 재인용).

경계선 성향을 가진 개인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중심적이고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적인 방식의 방어를 한다. 대인관계에서 경험되는 갈등과 불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하며 이러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자해나 자살 시도 등의 극단적인 해결책을 보이게 된다(Zanarini, 1990).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자기억제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충동적 방어 또는 분열, 원시적 이상화, 초기 형태의 투사, 투사적 동일시, 부정, 전지전능감, 평가절하 등의 미성숙한 방어를 보인다(Kernberg, 1975; Zanarini, 2009).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군은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환자군에 비해 부적응적인 방어양상이 두드러지며, 투사와 행동화 방어기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정해, 2009). Collins(1983)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와 신경증 환자, 정신병 환자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계선 환자들은 분리와 투사적 동일시, 낮은 수준의 이상화와 중간 수준의 평가절하의 방어기제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와 정신병 환자사이에서 주요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신경증 환자와의 비교에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계선 성격 환자들이 신경증 환자들보다 분리와 투사적 동일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성호(1999)가 타당화시킨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K-DSQ)를 통하여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의 관련성에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볼 것이다.

3) 심리도식과 대처방식 및 방어유형

대처방식이란 한 개인의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외적 혹은 내적 요구를 다루어 가는 과정인데(Lazarus, Folkman, 1984), 대처에 관심을 두는 연구자들은 대처를 성격적 구성 요소로 보거나(Bolger, 1990, Flesherman, 1984), 특정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즉 행동적 개념으로 본다. 대처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방어의 관점, 성격특성의 관점, 상황에 대한 기능의 관점에서 파악되어 왔다(Folkman & Lazarus, 1980).

심리도식치료에서는 ‘심리도식 그 자체’와 ‘심리도식에 대처하기 위해 구사하는 방략’을 별도로 구분한다. 심리도식 그 자체는 기억, 정서, 신체감각, 인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의 행동반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동은 심리도식의 일부가 아니라 대처반응의 일부다. 심리도식은 행동을 이끌어낸다. 비록 대부분의 대처반응이 행동이기는 하지만, 개인은 인지적 혹은 정서적 방략을 통해서 대처하기도 한다. 대처방식이 인지, 정서, 행동으로 발현될 수는 있지만, 심리도식 그 자체에 대처방식이 속하는 것은 아니다 (Young et al., 2005).

개인은 심리도식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 초기부터 부적응적인 대처방식(coping style)과 대처반응(coping response)을 발달시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도식이 일반적으로 야기하는 강렬하고 압도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처방식이 심리도식을 회피하는 것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심리도식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부적응적 대처방식은 심리도식을 영속화하는 과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Young et al, 2005). 성숙한 방어기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방어기제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상황회피적인 ‘분리’방법을 훨씬 적게 사용한다. 즉, 성숙한 자아방어기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처행동은 단순히 상황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서적인 갈등상황을 호전시키려는 행동적인 노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leiter,1991).

대부분의 부적응 도식들은 적응적 방어유형과는 부적 상관을 지닌 반면, 부적응적 방어유형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낸다. 특히 고립/단절, 내성취약, 충동/분노, 예속/굴종의 네 개의 도식들의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부적응적 방어유형의 경향성은 더 강해진다. 타인에게 배려/희생적이되 예속/굴종되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정도가 높고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적응적 방어유형을, 반면에 타인과 고립/단절되거나 예속/굴종되어 있고 충동/분노가 많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취약한 사람들은 부적응적 유형의 방어를 더 많이 한다. 한편,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고 타인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배려/희생적이지도 않으며 타인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냉담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고 타인에게 배려/희생적이며 스스로를 결함이 없고 우월한 존재로 지각하며 내적인 충동/분노가 적은 특성을 지닌 사람은 온화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조성호, 2001).

부적응 도식은 미성숙한 방어와 관련이 있고, 대인관계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대처방식으로 작용하는 방어기체에 따라 개인은 심리도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렬하고 압도적인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데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자기상, 전반적인 정서적 불안정성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심리도식과 방어유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경계선 성향에 대한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48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포함된 설문지는 한국판 부적응 도식 척도 중 여섯 가지 요인, 한국판 방어유형 설문지, 경계선 성격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한국형 성격장애진단 설문지였다. 수집한 자료 중 반응누락이나 무작위반응 등으로 인해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외한 429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종분석을 하였다. 참가자의 연령 분포는 18~35세였으며, 이 중 남자는 202명(47.1%), 여자는 227명(52.9%)이었다.

2. 측정도구

1) 한국판 도식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Young이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식 질문지(Schema Questionnaire, 1990, 1994, 1999)를 기초로 조성호(2001)가 개발한 한국판 도식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73문항에 1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식들은 각기 4~24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 진술문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따라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도식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되며, 16개의 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하위요인

실패/무능	자신은 무능하고, 실패자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정서적 지지결여	자신의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다.
절대기준 /완벽	달성하기 어려운 절대적 기준과 완벽에 대한 추구를 나타낸다.
비분리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과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예속/굴종	자신의 선호, 결정, 욕구 등을 과도하게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불신	타인은 결국 자신을 이용하고 말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다.
내성취약	사소한 스트레스나 불편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나타낸다.
배려/희생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부가적인 짐이나 부담을 지면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결함	자신은 중요한 면에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사랑스럽지 않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고립/단절	자신은 남들과 다르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의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다.

상실우려	자신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중요한 사람이 자신을 버리거나 떠나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나타낸다.
파국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타인으로부터 해침을 당함으로써 초래되는 위험이나 파국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
충동/분노	충동이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 상황에 대한 우려와 충동이나 분노에 대한 정서 통제의 결함을 측정한다.
자기우월	자신은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구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몰락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릴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조성호(2001)의 연구에서 .75~.95(평균 .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94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간주되는 6개 요인(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 고립/단절)만을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는 각각 .87, .88, .80, .85, .85, .89이었다.

2)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Korea-Defense Style Questionnaire)

개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측정하기 위해 Bond등(1983)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인 Defense Dstyle Questionnaire를 우리나라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조성호(1999)가 타당화한 것으로서, 방어유형은 여러 개의 개별 방어기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호(1999)의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미성숙한 방어유형(행동화, 투사, 분

열, 공상, 수동-공격, 소비), 요인 2는 적응적 방어유형(유머, 전응, 승화, 부정), 요인 3은 자기억제 방어유형(억제, 반동형성, 철수, 취소), 요인 4는 갈등회피적 방어유형(체념, 격리)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 내용이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방어유형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방어유형 질문지의 하위요인과 각 방어유형에 속하는 방어기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의 하위요인

미 성 숙 한 방 어 유 형	행동화	반성하거나 느끼기보다는 행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감정적 갈등이나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투사	자신의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 사고 등을 부당하게 타인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감정적 갈등이나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분열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책임을 상대방에게로 전가시킨다.
	공상	충동을 공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한다.
	수동-공격	타인에게 간접적이거나 비공격적으로 공격성을 표현함으로써 감정적 갈등이나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소비	충동이나 욕구를 부적절한 방식(예: 알콜 섭취)으로 해결한다.

적응적 방어유형	유머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인의 유쾌한 측면이나 역설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잠재적인 갈등이나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진능	자아의 확대를 지향하며, 이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자아의 병리를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현실적 기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반영한다.
	승화	잠재적으로 비적응적인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동으로 변형시켜 표현함으로써 감정적 갈등이나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부정	내·외적 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 거부일 경우에는 병리적인 자기기만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원만한 현실적응을 위해 내적 욕구나 충동을 자기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라면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자기억제 방어유형	억제	괴롭히는 문제나 욕구, 감정 또는 경험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함으로써 감정적 갈등이나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반동형성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 등과는 정반대의 행동이나 생각, 감정들로 대치함으로써 감정적 갈등이나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철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를 보호한다.
	취소	용납할 수 없는 생각, 감정, 또는 행동을 무효화하거나 상징적으로 수정하려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 감정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갈등 회피적 방어 유형	체념	주위의 그 누구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도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포기는 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되풀이 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다.
	격리	심리적 갈등이나 부정적 감정의 의식적인 차단을 의미한다. 감정이나 충동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의식적 경험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편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조성호(1999)의 연구에서 .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87로 높게 나타났다.

3)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고 임상적 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Morey(1991)가 개발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인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PAI) 중 PAI-BOR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특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은주(1999)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24문항으로 4점 척도에서 평정하며, 정서적 불안정성(BOR-A), 정체감 문제(BOR-I), 부정적 대인관계(BOR-N), 자해(BOR-S)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들에서의 높은 점수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표 3.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하위요인

정서적 불안정성 (BOR-A)	정서적으로 매우 반응적인데, 정서장애들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순환적인 기분변화가 아닌 빠르고 극단적인 기분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인다.
정체감 문제 (BOR-I)	중요한 인생문제들에 대해 불확실하고 목적이 없다. 전형적으로 자신을 공허하고, 지루하거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부정적 대인관계 (BOR-N)	양가적이고 강렬하고 불안정한 관계들을 경험했다고 보고한다. 종종 한 때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분개하고 배신당했다고 느낀다.
자해 (BOR-S)	낭비, 성교, 혹은 약물남용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영역들에서 충동적이다. 그런 행동은 전형적으로 효율적인 사회적·직업적 수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한다. 자해와 자살행동 위험이 높다.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Morey(1991)의 연구에서 .87~.91이었으며, 최은주(1999)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84였다. 본 연구에서도 .82로 높게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도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경계선 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되는 방어 유형을 매개요인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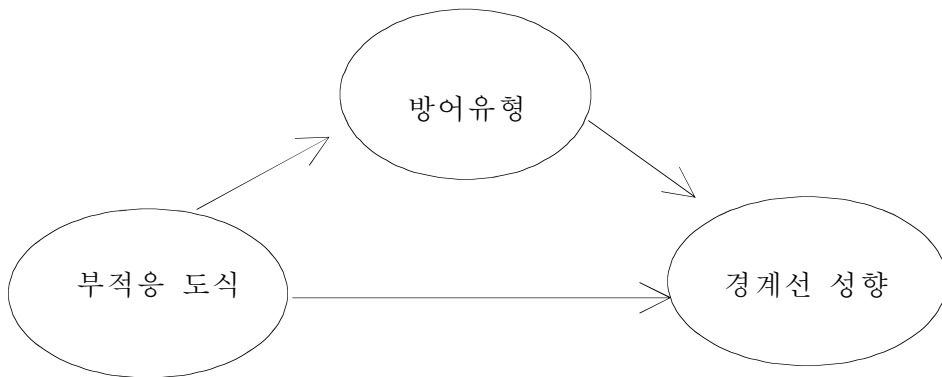


그림1. 연구모형

4. 자료의 분석

우선 각각의 척도에 대한 내적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계산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과 각 변인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18.0이었다. 부적응 도식과 경계선 성향 사이를 방어유형이 중재, 매개하는지 재검증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접근법을 사용하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구조 방정식 모델 접근법을 통해 나타나는 경로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수준을 Bootstrap 방법과 Sobel test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참가자들 전체 집단의 평균 연령은 21.82세($SD=4.94$)였으며, 성별에 따른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부적응 도식과 경계선 성향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방어유형은 각 방어유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선 성향의 하위요인 중 정체감 문제에서만 유일하게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평균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체감 문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정체감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한 인생문제들과 목표에 대해 불확실감을 느끼며, 공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평균차이(n=429, 남=202, 여=227)

변인	하위요인	평균(표준편차)		
		남	여	t
부적응도식	예속/굴종	31.26(7.98)	31.33(8.50)	-.07
	내성취약	34.70(7.85)	34.25(7.69)	.58
	고립단절	20.07(8.05)	18.72(6.83)	1.88
	상실우려	20.55(7.99)	21.13(7.42)	-.77
	과국	12.19(5.46)	11.88(4.64)	.64
	충동/분노	15.63(6.75)	15.04(5.07)	1.02
	총합	27.43(10.41)	29.14(8.87)	.66
방어유형	적응적	67.42(12.12)	69.01(11.77)	-1.37
	미성숙	83.30(21.49)	86.33(19.50)	-1.53
	자기억제	54.92(12.45)	57.47(12.44)	-2.11
	갈등회피	16.58(6.48)	16.87(5.72)	-.48
경계선	정서적불안정성	12.80(3.31)	13.32(3.01)	-1.69
	정체감 문제	13.43(3.11)	14.55(2.75)	-3.98***
	부정적 대인관계	12.96(3.02)	13.15(2.67)	-.68
	자해	12.23(3.44)	12.10(3.18)	.39
	총합	51.43(10.41)	53.14(8.87)	-1.83

*** $p < .001$, ** $p < .01$, * $p < .05$

2.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경계선 성향과 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계선 성향은 부적응도식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r=.625, p<.01$) 부적응도식의 하위 요인 중 충동/분노가 경계선 성향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542, p<.01$), 상실우려, 파국, 내성취약, 고립/단절, 예속/굴종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경계선 성향과 방어유형과의 상관에서는 미성숙, 자기억제, 갈등회피와 정적상관을 보이는 한편(각각 $r=.579, p<.01, r=.408, p<.01, r=.431, p<.01$), 적응적 방어유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도식과 방어유형과의 상관에서는 미성숙, 자기억제, 갈등회피와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한편,(각각 $r=.652, p<.01, r=.568, p<.01, r=.567, p<.01$), 적응적 방어유형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154, p<.01$).

표 5. 각 변수들에 대한 상관(n=429, 남=202, 여=227)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부적응도식	1.예속/굴종	.419														
	2. 내성취약	**														
	3. 고립단절	.565	.428													
	4. 상실우려	.548	.453	.658												
	5. 파국	.483	.345	.619	.644											
	6.충동/분노	.386	.369	.436	.541	.610										
	7. 전체	.766	.678	.814	.842	.774	.698									
방어유형	8.미성숙한	.474	.458	.435	.534	.533	.588	.652								
	9.자기억제	.562	.343	.425	.437	.359	.445	.568	.655							
	10.갈등회피	.483	.297	.537	.438	.443	.397	.567	.587	.554						
	11.적응적	-.130	-.049	-.111	-.121	-.135	-.177	-.154	-.350	-.354	-.129					
경계선성격	12.정서적 불안정성	.238	.360	.359	.386	.419	.496	.480	.463	.291	.300	.040				
	13.정체감 문제	.293	.412	.380	.475	.371	.464	.520	.484	.420	.326	-.035	.593			
	14.부정적 대인관계	.288	.263	.450	.431	.442	.391	.486	.444	.298	.405	.076	.547	.500		
	15. 자해	.274	.508	.324	.363	.376	.354	.479	.430	.278	.331	.024	.488	.443	.366	
	16. 전체	.379	.496	.478	.524	.511	.542	.625	.579	.408	.431	.033	.839	.802	.753	.747

3. 경계선 성향에 대한 각 변수의 중다회귀분석

경계선 성향과 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계선 성향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적응적 방어유형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부적응도식과 방어유형이 모두 유의미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응도식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경계선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부적응적인 방어유형(미성숙, 자기억제, 갈등회피)을 많이 사용할수록 경계선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경계선 성향에 대한 각 변수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β	t	R ²	ΔR^2	F
			.415	.412	151.15***
부적응도식	.474	9.21***			
방어유형	.218	4.24***			

*** $p < .001$

4. 구조 방정식 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연구 모형과 매개 경로를 검증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1) 방어유형의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부적응도식이 경계선 성향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방어유형을 매개로 하여 경계선 성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매개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방어유형이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을 부분매개 한다고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 = 63.815$, $p < .0001$ 이고, GFI = .965, TLI = .953, CFI = .970, RMSEA = .077로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χ^2	df	GFI	TLI	CFI	RMSEA
63.815	18	.965	.953	.970	.077

2)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의 관계에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난 부분매개모형을 대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경로계수 경로값을 표8 에 제시하였다.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응 도식은 방어유형을 매개로 경계선 성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계선 성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과 동일한 결과이다.

표 8. 연구 모형의 경로검증결과

경로	경로계수(표준화계수)	S.E.	C.R.
방어유형 ← 부적응도식	.844(.766)***	.046	18.441
경계선성격 ← 방어유형	.249(.404)***	.051	4.925
방어유형 ← 부적응도식	.255(-.376)***	.051	5.00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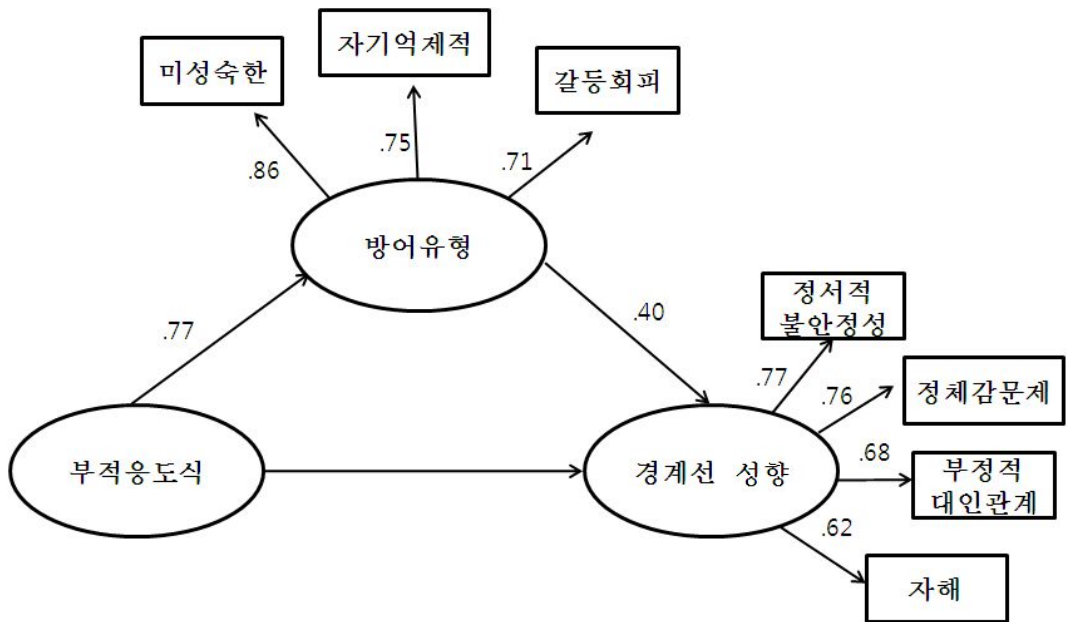


그림2. 부적응도식, 방어유형, 경계선성향의 관계 모형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인 각각의 매개변수에 대한 Sobel test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 사이에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는 Z_{ab} 값이 4.718165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접, 간접 효과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 사이에 방어유형의 매개효과의 수용확인을 위해 Bootstrap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알아보았다.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249에서 .844까지 나타났다. 부적응도식이 경계선 성향을 설명하는데 직접효과가 유의함과 동시에 방어유형의 총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계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9.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전체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	간접	전체
부적응도식	방어유형	.844**	.000	.844**
	경계선성향	.255**	.210**	.465**
방어유형	경계선성향	.249*	.000	.249*

** $p < .01$, * $p < .05$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논의

본 연구에서는 방어유형이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부적응도식(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 고립/단절), 방어유형(적응적, 미성숙, 자기억제, 갈등회피), 경계선성향(정서적 불안정성, 정체감 문제, 부정적 대인관계, 자해) 간의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결과, 부적응 도식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부적응적 방어유형(미성숙/자기억제/갈등회피)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적응적 방어유형은 적게 사용하였다. 또한, 부적응 도식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부적응적 방어유형(미성숙/자기억제/갈등회피)을 많이 사용할수록 경계선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적응도식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부적응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적응적 방어유형은 적게 사용한다는 결과는 조성호(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개인은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에 대응하기 위해 부적응적인 대처방식과 대처반응을 발달시키며, 이것이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을 영속화하는 과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Young, 2005)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적응도식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경계선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들(Beck, 1990; Arntz, Diezel & Dreessen, 1999; Andrew, Brown, Beck, & Grisham, 2002; 조성호, 2002; 이지영, 손정락, 2007)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부적응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경계선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Zanarini(1990, 2000)와 권정혜(2009), 이상우(2010)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의 관련성에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한 결과, 부적응 도식은 부적응적인 방어유형(미성숙/자기억제/갈등회피)을 매개로 하여 경계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도식은 경계선 성향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방어유형이 부적응도식과 경계선 성향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적응도식은 경계선 성향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 Young이 제안한 18개의 부적응 도식 중에서도 특정한 몇 가지 도식들은 경계선 성향과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경계선 성향과 관련된 부적응 도식의 하위요인은 다소 차이가 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경계선 성향과 비교적 일관되게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진 6개의 부적응 도식(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 고립/단절)을 채택하였으며, 채택된 도식은 유기에 대한 만성적인 공포, 충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한 내성, 잦은 분노 폭발, 의존과 독립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불안정한 대인관계 패턴, 미약한 자기-가치감, 만성적 공허함과 같은 주요한 경계선 성향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기제와 도식은 내재적인 과정이며, 인지적인 왜곡된 지각이나 인

지적 패턴을 포함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할수록 공고해지며, 성격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도식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참조 틀로써 기능한다면, 방어기제는 정신내적 갈등이나 외적인 환경적 요구와의 갈등에 대한 정신적인 대처로써 기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리도식은 기억, 정서, 신체감각, 인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의 행동반응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심리도식은 대처방식을 발달시키고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방어기제는 성숙한 기제에서 미성숙한 기제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위계를 가지고 있고(Vailiant, 1986), 신경증적 질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한 심리도식이 경계선 성향과 관련성이 깊으므로 이 두 변인의 관련성에서 방어유형을 매개로 하여 경로를 검증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매개모형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적응 도식(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 고립/단절) 자체가 경계선 성향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적응적인 방어기제(미성숙/자기억제/갈등회피)와 연합할 때 경계선 성향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보았던 부적응도식과 방어유형의 경계선 성향에 대한 독립적인 관련성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 부적응도식과 방어기제가 각각 경계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예; Andrew ,Brown, Beck, & Grisham, 2002; 조성호, 2002; Zanarini, 2000; 권정해, 2009; 이상우, 2010), 부적응도식과 방어기제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예; 조성호, 2001). 본 연구는 부적응도식과 방어기제의 관련성을 밝히고, 방어기제를 매개로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 두 변인들이 경계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경계선 성향에 단일한 부적응도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몇몇 도식들과 대처방식이 조합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도식양식(mode)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로부터 경계선 성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의 치료적인 시사점은 부적응도식과 더불어 방어기제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경계선 성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경계선 성향은 상황에 따라 매우 낮은 기능 수준에서부터 신경증적인 성향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있으며(Grilo, 2004; Clarkin, 2006; Clarkin & Levy, 2006), 일반인에게도 약화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의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인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충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한 내성, 잦은 분노폭발, 의존과 독립을 오가는 불안정한 대인관계 패턴, 미약한 자기-가치감, 만성적인 공허감과 같은 경계선적 성향으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및 상담에 유용할 것이다.

부적응도식은 자기 영속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하는데 있어서 저항적이고, 방어기제 또한 의식화하기 어렵고 지속성을 갖고 있으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해 경계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부적응도식을 토대로 관련된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고, 방어유형 중 경계선 성향과 가장 관련이 깊었던 미성숙한 방어기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대처방략을 수정·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치료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특정 지역의 성인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타 지역의 집단이나, 국내의 전체 성인 초기 연령 집단들에 비교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를 포함한 많은 성격장애의 발현 시기가 청소년기 및 성인기 초기인(DSM-IV, 1994)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가 성격장애 발현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성인 초기 연령 집단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 집단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 집단에 직접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계선 성향이 부적응도식과 방어유형에서 보이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응도식과 방어유형에서 보이는 양상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자의 반응이 개인적인 요인과 상황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태도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방법과 더불어 보다 객관적인 검사가 보장된다면 심리내적기제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치 결과에서 경계선 성향의 전체 값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경계선 성향의 하위요

인인 정체감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 전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 중 여성의 비율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PA, 1994), 남녀 각각의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에서 보이는 심리적 양상이 다르고, 방어기제 사용의 양상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김유심, 채준호, 박영숙, 1999; 유영달, 2003; 이상우, 장문선, 2010, 재인용) 따라서 경계선 성향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양한 심리기제 및 방어기제 양상의 차이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권 (1979). 불안과 방어기제수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권정혜 (2009).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군의 MMPI-2 특성 및 자아방어기제 양상.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영혜 (2005). 상담에서 도식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751-768.
- 김윤숙 (2005).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 초기 부모 애착과 경계선 성격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김은경 (1992). 자아방어기제를 통해 본 방어성과 자기존중감(Self-Esteem)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지선 (2008). 사회적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정서지각.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우상우, 장문선 (2010) 초기 대상관계와 경계선 성격의 관련성에서 자기 개념, 방어기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453-469.
- 유성진, 권석만 (2008). 심리치료에서 도식과 양식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91-117.
- 유영수 (1995). 자아방어기제와 직무스트레스가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인길, 이근후 (1991).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아 방어기제 연구: 전래 속담을 기초로 한국형 자아 방어기제에 의한. 신경정신의학 30(1), 198-206.
- 이지영, 손정락 (2007). 도식과 정서와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

대회 논문집. 276-277.

정한용, 한순호, 최의정, 김동욱 (1999). 진로선택에서 나타난 의과대학생의 자아방어기제. *신경정신의학*, 38(6). 1412-1420.

조두영, 홍택유, 백기청 (1988). 전공의의 전문과목 선택과 성격유형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27(1), 108-119.

조성호 (2000). 경계선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조성호 (2001). 초기 부적응 도식과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39-54.

조성호 (200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775-778.

최정윤, 박경, 서혜희 (2002).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Andrew C., Butler, A. C., Brown, G. K., Beck, A. T. & Grisham, J. R. (2002). Assesment of dysfunctional belief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1231-1240.

Arntz, A.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2nd edn(eds A.T.Beck, A.Freeman, D.D.Davis and Associat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Arntz, A. & Genderen, H (2009). *Schema 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alden: Wiley-Blackwell Press.

Boschen, M. J. & Warner, J. C. (2009). Publication trends in individual DSM personality disorders. 1971-2015 *Australian psychologist*. 44(2) 136-142.

-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ond, M. B., Gardner S. T., Christian, J., & Sigal, J. J. (1983).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333-338.
- Brenner (1976). *Psychoanalytic Technique and Psychic Conflic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yrne, D., Barry, J., & Nelson, D. (1963). The revised repression sensitization scale and its relationship to measures of self description. *Psychological Reports*, *13*, 323-334.
- Caplan, R.D., Naidu, R. K., & Tripathi, R. C. (1984). Coping and Defense: Constellation vs. compon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25*, 303-320.
- Clarkin, J. F. (2006).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personality disorders. *psychotherapy research*, *16*, 1-11.
- Clarkin, J. F. & Levy, K. N. (2006). psychotherapy for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ocusing on the mechanism of change. *special issne of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 405-516.
- Collins.R. (1983). *Roscha correlates of Borderline Personality*. Doctotal disseration, Dep. of Appl. Psych., Univ. of Toroto.
- Crowder, M. K., & Hollender, M. H. (1980). The Medical Student's Choice of Psychiatry as a Career: A Survey of One Graduating Class. *The American Journal of pstchiatry* *138*(4), 505-507

- Freud, S. (1926). Inhibitions, symptoms and anxiety.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20). London: Hogarth Press.
- Freud, A. (1936).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se*. London: Hogarth Press, 1937–(1931).
- Grilo, C. M. (2004). Two-year stability and change in schizotypal, borderline, avoidant, and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 767–775.
- Freud, A. (1936).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s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an, N. (1963). Proposed model of ego functioning: Coping and Defence Mechanisms in Relationship to IQ change. *Pshchol Monogr*, 77, 1–23.
- Inlievich, D. & Gleser, G. C. (1986). *Defence mechanism: Their classification corelate and measurement with the defence mechanism inventory*. Owosso, MI: DMI Assoc.
- Jovev M, Jackson H. J. (2004).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personality disordered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18(5) 467–478.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Linehan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Guilford press NewYork London.

- Mentzos, S. (1982). *Neurotische Konthktverarbeitung: Einfubrung in die psychoanalytiscbe Neurasenlebre unter Berucksicbtigung neuer perspektiven*. Munchen: Kindler verlag.
- Miller, D. R., & Swanson, G. E. (1966). *Inner Conflict and defense*. New York: Schocken Books.
- Millon, T. (1986a). Personality prototypes and their diagnostic criteria. In Million, T., & Klerman, G. L, (Eds.). *Contemporary directions in psychopathology: Toward the DSM-IV*, 671-712. New York: Guilford.
- Millon, T. (1986b). A theoretical derivation of pathological personalities. In T. Millon & Klerman, G. L, (Eds.). *Contemporary directions in psychopathology: Toward the DSM-IV*, 639-669. New York: Guilford.
- Piaget, J. (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ew York: Norton.
- Plutchik, G., & Conte, H. R. (1989). Measuring emotions and their derivative: personalty traits, ego defenses, and coping styles. In Wetzler, S., & Katz, Mm M(Eds). *Contenporary approaches to psychological assesment*. New York: Brunner/Mazel, Inc. *Psychological Association 17*, 785-807.
- Pretzer, J. L. & Beck. A. T. (1996). A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J. F. Clarkin & M. F LenZenweger(eds), *Major theories of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chafer, R. (1968). *The Mechanism of defense. International Journal*

- of *psychoanalysis*, 49, 49-62.
- Stone, M. H., Stone D.K., & Hurt, S.W. (1987). The natural history of borderline patients treated by intensive hospitalization.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0, 185-206.
- Torgersen S, Kringlen E, Cramer V. (2001). The prevalence of personality disorders in a community sample. *Arch Gen Psychiatry*, 58, 590-596.
- Vailiant, G. E. (1971). Theoretical hierarchy of adaptive ego mechanisms: A 30-year follow-up of 30 men selected for psychological heal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 107-118.
- Vailiant, G. E. (1976).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The relation choice of ego Mechanisms of Defense to adult adjustment. *Arch Gen psychiatry* 33, 535-545.
- Vailiant (1986). *Empirical Studies of Ego Mechanisms of Defens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Vailiant, G. E., Bond, M., & Vaillant, C. O. (1986). An Empirically validated Hierarchy of Defense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786-794.
- Willick, S. (1995). The defense. In B. Moore & B. Fine(Eds.) *Psychoanalysis the major concepts*.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Zanarini, M. C. (1990). discriminat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rom other axis II disorders. *American J psychiatry*. 147. 161-167.

- Zanarini, M. C. (2009). rorschach assesment of reality testing, affect and object representation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0(2), 11-121.
- Gilson, Mark, Arthur Freeman. (2002). Overcoming Depression: A cognitive theraphy Approach for Taming the Depression BEAST. 최병휘역(2006) 우울증의 인지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Robert.D. Friedberg, Jessica M. McClure. (2002). Clinical Practice of Cognitive 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정현희, 김미리혜 공역(2007).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지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Young, J.E. Klosc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권석만, 김진숙, 서수균, 주리아, 유성진, 이지영 공역(2005) 심리도식치료. 서울: 학지사.

AB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Defense Sty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Schemas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Kim, Sung-Yoon

Dep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elations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maladaptive schemas, defense styles. For this research, 429 male and female adults over 18 were administered with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Korea-defense style questionnaire and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maladaptive schemas and maladaptive defense styles. While adaptive defense styles had no correlatio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y

using maladaptive schemas and maladaptive defense styles showed significant accountability for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Second, defense styles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ladaptive schemas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directly or indirectly. Further, the path model showed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defense styles through Sobel test.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 maladaptive schemas,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defense Styles, mediating effect

부 록

부록 1. 한국판 도식질문지

부록 2.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

부록 3.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부록 1. 한국판 도식질문지

※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각 문항의 내용이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에 따라 ○표를 하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전적 으로 그렇 다
1. 나중에 생겨날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편이다	1	2	3	4	5	6
2.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는 나에게 복수하거나 밀쳐낼 것이다.	1	2	3	4	5	6
3.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	1	2	3	4	5	6
4.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도록 비위를 맞춰주는 데 신경을 많이 쓴다.	1	2	3	4	5	6
5. 내 권리나 감정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1	2	3	4	5	6
6. 분노를 직접적으로 보이는 대신에 다른 식으로 되갚아 주는 편이다.	1	2	3	4	5	6
7. 직면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피하는 것이 훨씬 많다.	1	2	3	4	5	6
8. 내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잘못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6
9.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6
10.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 진다.	1	2	3	4	5	6
11.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1	2	3	4	5	6
12. 나를 비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13. 술, 담배, 과식과 같은 문제행동을 끊기가 매우 어렵다.	1	2	3	4	5	6
14. 일상적이고 지루한 과제를 마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하다.	1	2	3	4	5	6
15.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으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1	2	3	4	5	6

16. 먼 훗날의 목표를 위해 눈앞의 만족이나 즐거움을 참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1	2	3	4	5	6
17.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6
18. 쉽게 지루해하는 편이다.	1	2	3	4	5	6
19. 일이 어려워지면, 끈기 있게 참으면서 끝까지 완수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6
20. 무슨 일이든 오랫동안 집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6
21. 나에게 이득이 되더라도 즐겁지 않은 일은 억지로 못한다.	1	2	3	4	5	6
22. 조금만 불쾌해도 화를 내는 편이다.	1	2	3	4	5	6
23. 내 해결책에 집착한 적이 별로 없다.	1	2	3	4	5	6
24.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6
25. 나는 어느 곳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	1	2	3	4	5	6
26.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1	2	3	4	5	6
27.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고독한 사람이다.	1	2	3	4	5	6
28. 다른 사람들로 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1	2	3	4	5	6
29. 고립감이 느껴지고, 혼자인 것 같다.	1	2	3	4	5	6
30. 항상 아웃사이더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31. 때로는 나는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32. 내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다.	1	2	3	4	5	6
33. 나이 들어서 외톨이가 될 것 같다.	1	2	3	4	5	6
34. 가까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더 매달리게 된다.	1	2	3	4	5	6
35. 내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6
36.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벗어날 수가 없다.	1	2	3	4	5	6

37. 내가 관심을 보이던 사람이 나를 밀쳐내면, 매우 좌절하게 된다.	1	2	3	4	5	6
38. 때때로 사람들이 내 결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돼서 내가 그들을 멀리 하곤 한다.	1	2	3	4	5	6
39.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누군가 나를 혼자 놔두면 화가 난다.	1	2	3	4	5	6
40.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발견하면 떠날 것 같아 걱정이 많다.	1	2	3	4	5	6
41. 내게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1	2	3	4	5	6
42.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너무나 무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5	6
43. 누군가로부터 공격 당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6
44. 병원에 가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심각한 병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곤 한다.	1	2	3	4	5	6
45. 종종 미쳐버리는 것이 아닐까 한다.	1	2	3	4	5	6
46. 불안 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하고 종종 느낀다.	1	2	3	4	5	6
47. 의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6
48.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곧 죽게 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6
49. 내 행동에 대해 통제력을 잃을까봐 걱정이다.	1	2	3	4	5	6
50. 감정통제가 안 되면 누군가에게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게 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6
51. 감정이나 충동 같은 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1	2	3	4	5	6
52. 표현하지 못하는 분노나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쌓여있다.	1	2	3	4	5	6
53. 종종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상처를 주곤 한다.	1	2	3	4	5	6
54. 화가 나기 시작하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부록 2.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

※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고, 각 문항의 내용이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표를 하십시오.

문항	전혀 일치 하지 않는 다	상당 히 일치 하지 않는 다	조금 일치 하지 않는 다	중간 이다	조금 일치 한다	상당 히 일치 한다	매우 일치 한다
1. 나는 화가 나면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은근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2. 사람들은 늘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6	7
3. 나는 마음이 불안할 때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예:책읽기, 공부하기, 그림그리기 등)을 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곤 한다.	1	2	3	4	5	6	7
4. 나도 모르게 행동이 먼저 나와 뒷수습을 하는데 골머리를 썩히는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5. 나는 심란한 일로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곧잘 유머를 발휘해서 기분을 전환시키곤 한다.	1	2	3	4	5	6	7
6. 사람들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기가 웬지 매우 조심스럽다.	1	2	3	4	5	6	7
7. 나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다.	1	2	3	4	5	6	7
8. 사람들은 나를 못 살게 구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9. 내 돈을 뺏어간 강도가 벌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6	7
10. 나는 불쾌한 일을 겪어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다.	1	2	3	4	5	6	7
11. 최선을 다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기가 웬지 주저스럽다.	1	2	3	4	5	6	7
12. 내가 가진 능력은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1	2	3	4	5	6	7
13. 나는 순간순간 겪게 되는 힘든 일들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해소하곤 한다.	1	2	3	4	5	6	7
14. 어쩔 수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해 버릴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15. 누가 나에게 억지로 무슨 일을 시킨다면 걸으려는 열심히 하는 척 해도 실은 건성으로 해버린다.	1	2	3	4	5	6	7
16. 나는 슈퍼맨처럼 막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닥쳐도 전혀 두렵지 않다.	1	2	3	4	5	6	7
17. 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18.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에 신경을 몹시 쓰는 편이다.	1	2	3	4	5	6	7
19.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깔아뭉개는 상상을 종종한다.	1	2	3	4	5	6	7
20. 기분이 안 좋으면 전후사정 안 가리고 내키는 대로 해버려야 직성이 풀린다.	1	2	3	4	5	6	7
21. 나는 여러모로 억제를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22.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더라도 전혀 기죽지 않는다.	1	2	3	4	5	6	7
23. 나는 공상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1	2	3	4	5	6	7
24. 마음이 괴로울 때면 사람들을 멀리한다.	1	2	3	4	5	6	7
25. 나도 모르게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부터 제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26. 재치 넘치는 유머로 심각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1	2	3	4	5	6	7
27. 화가 나면 사람들 대하기가 싫어진다.	1	2	3	4	5	6	7
28. 기대 이상으로 나를 친군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미리 경계해야 뒤통이 없다.	1	2	3	4	5	6	7
29.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1	2	3	4	5	6	7
30. 만나기 싫은 사람과의 약속에는 웬지 모르게 종종 늦게 된다.	1	2	3	4	5	6	7
31. 현실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공상 속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32. 속으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웬지 모르게 매우 어렵다.	1	2	3	4	5	6	7
33. 인적이 뜸한 발길에 낯선 사람이 뒤따라 온다해도 전혀 겁나지 않는다.	1	2	3	4	5	6	7
34. 어떤 때에는 내가 쎄팍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어떤 때에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7

35. 나는 화가 나면 드러내 놓고 화를 내기보다는 비꼬거나 빈정거리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36. 상대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차근차근 따지기보다는 일단 화부터 내고 본다.	1	2	3	4	5	6	7
37. 누가 나를 귀찮게 해도 싫은 표시를 못하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하는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38. 힘들게 사는 다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위로해 주다보면 어느덧 내 마음의 아픔까지도 덜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39. 서글픈 마음이 들면 사람들을 피해 혼자 지내게 된다.	1	2	3	4	5	6	7
40. 성(性)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6	7
41. “나쁜 짓은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이 내 삶의 철학이다.	1	2	3	4	5	6	7
42.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1	2	3	4	5	6	7
43. 상사가 괴롭히면 직접 따지기보다는 일부러 일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실수를 저질러 그를 곤경에 빠뜨려 버릴 것이다.	1	2	3	4	5	6	7
44.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6	7
45.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려고 애쓰는 편이다.	1	2	3	4	5	6	7
46.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6	7
47. 나는 매우 힘들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웃음거리를 찾아내서 기분전환을 잘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48. 화를 내도 시원찮을 사람에게조차도 매우 친절하게 대하는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49. 어떤 사람이 나쁘다면 그는 전적으로 나쁜 것이지, 그 사람에게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측면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1	2	3	4	5	6	7
50.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치켜세우거나 칭찬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51. 나는 부당한 내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	1	2	3	4	5	6	7
52.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더라도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의사는 하나도 없을 것 같다.	1	2	3	4	5	6	7
53. 꿈같이 생각해보면 화가 날 만도 한데 실제로는 화난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54. 다른 사람에게 내 입장을 강하게 내세운 다음에는 내가 너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곧 사과를 하게 된다.	1	2	3	4	5	6	7
55. 내가 겪는 문제들 중 상당 부분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	1	2	3	4	5	6	7

람들 탓이다.							
56.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이 들 때 뭔가를 먹게 되면 기분이 나아진다.	1	2	3	4	5	6	7
57. 주위의 그 누구도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1	2	3	4	5	6	7
58. 나는 주위로부터 내 말에서 감정이 느껴지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1	2	3	4	5	6	7
59. 큰 감동을 준다는 TV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60. 나에겐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꾸 하게 되는 습관이나 의식치레 같은 게 있다.	1	2	3	4	5	6	7
61. 긴장하게 되면 자꾸 물을 마시게 된다.	1	2	3	4	5	6	7
62. 주위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아무리 호소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	1	2	3	4	5	6	7
63.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64.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 담배를 피우건 술을 마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1	2	3	4	5	6	7
65.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지워버리기 위해 다른 일에 몰입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7

부록 3.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 다음의 항목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기분이 매우 갑작스럽게 변한다.	1	2	3	4
2. 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한다.	1	2	3	4
3. 나의 대인관계는 매우 불안정했다.	1	2	3	4
4. 내 기분은 아주 강렬해지곤 한다.	1	2	3	4
5. 때때로 나는 몹시 공허한 느낌이 든다.	1	2	3	4
6.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알고 싶다.	1	2	3	4
7. 내 기분은 매우 안정되어 있다.	1	2	3	4
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많이 걱정한다.	1	2	3	4
9. 한 때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켰다.	1	2	3	4
10. 나는 분노를 거의 통제할 수가 없다.	1	2	3	4
11. 나는 종종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1	2	3	4
12. 나는 매우 외롭다고 느낄 때가 거의 없다.	1	2	3	4
13. 나는 때때로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1	2	3	4
14. 나는 언제나 아주 행복하다.	1	2	3	4
15.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없다.	1	2	3	4
16. 나는 친구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몇 번의 중요한 실수를 했다.	1	2	3	4
17. 화가 났을 때, 나는 보통 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	1	2	3	4
18.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내 화를 모두 표현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1	2	3	4
19. 나는 쉽게 지루해 하지는 않는다.	1	2	3	4
20. 한번 누군가와 친구가 되면, 우리는 계속 친구로 머문다.	1	2	3	4
21. 나는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	1	2	3	4
22. 나는 돈을 너무 쉽게 써버린다.	1	2	3	4
23. 나는 신중하지 못하다.	1	2	3	4
24. 나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1	2	3	4